

한국의 ‘재량 활동’과 일본의 ‘종합적 학습 시간’ 교육과정 비교 연구

최 호 성 · 김 종 주
(경남대학교 · 칠성고등학교)

I. 서 론

인류는 지금까지 겪지 못한 새로운 시대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개인의 요구는 더욱 다양화·개성화 되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사회의 제반 구조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관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국가는 교육의 기본 틀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의 각국은 인간 자원 개발을 위한 대대적인 교육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는 바, 한국의 경우도 열린교육 체제의 구축을 통한 학생 중심의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으로 개편을 시도하였다.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국민공통기본교육기간의 설정, 수준별 교육과정의 도입, 재량활동의 확대 및 신설 등은 세계화·정보화 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혁의 대표적인 방안으로 평가된다.

이 가운데, 제6차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학교 재량시간’은 학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7차 교육과정(1997. 12. 30 고시)에서는 ‘재량 활동’으로 수정되어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그 운영 시수를 확대하고, 중등학교 단계에서는 신설토록 하였다.

그렇지만, ‘재량 활동’의 확대·신설은 교육현장인 단위 학교의 요청에 의한 자율적 도입이라기보다 타율적 실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초기에 ‘재량 활동’에 대한 현장의 소극적이

고 부정적인 태도가 목격되었던 만큼, 제7차 교육과정의 ‘재량 활동’이 창설 취지와 본질을 살리면서 성공적으로 교육현장에 정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특성과 운영에 관한 사전 준비가 좀 더 치밀해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의 교육 여건이나 풍토와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 이웃 나라 일본의 교육도 큰 시대적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 일본은 2002년부터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에서 소·중학교(고등학교는 2003년 1학년, 2004년 2학년, 2005년 3학년 실시)에 시행될 새로운 형태의 교과외 교육활동을 제안하고 있다. 한국의 ‘재량 활동’과 유사한 성격의 교과 외 교육활동 가운데 하나로서 ‘종합적(総合的)인 학습 시간(이하, 종합적 학습 시간이라 칭한다)’을 편성·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적 학습 시간’은 전후 일본 교육의 핵심으로 작용해 왔던 관리 교육, 획일 교육, 집단 일제 교육, 주입식 교육, 그리고 교사주도형 교육(東山 明, 2001; 9)을 청산하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는 의미가 있다. 학교와 지역의 특색에 맞춘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선택을 토대로, 이른바 체험 중심의 교육을 실행하고자 하는 발상의 전환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중앙집권형 교육과정 체제를 고수해 온 일본은 가능한 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간략화하는 한편, 선택과목과 단위학교의 자유재량을 확대하여 교육의 다양화·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 수업 일수와 수업 시수를 삭감하여 학생들에게 창의성과 여유

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을 개혁하고 있는데, 2002년 주5일제 수업의 전면 실시와 '총합적 학습 시간'의 창설이 그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세계의 교육 선진국들이 고비용저효율의 학교 교육을 개혁하고 학생의 창의성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하려는 추세 속에서, 한국의 교육 문제나 풍토와 유사성을 지닌 일본 교육의 변화 노력을 비교학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작업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새량 활동'과 일본의 '총합적 학습 시간'이 그 창설배경이나 교육 목표, 학습 내용 및 운영 실체에 있어서 어떠한 공통성과 차이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서 양국의 교과 외 교육활동이 어떠한 지향점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한국의 '새량 활동' 운영 실체에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네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한국의 새량 활동이나 일본의 총합적 학습 시간은 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교과 외 교육활동의 일종이다. 그렇다면, 이들 역시 한 교육과정 체제로서의 구성요소와 특징을 지니고 있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 교육과정 체제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서 1) 교육과정 선정의 배경이나 맥락, 2) 교육과정에서 표방하는 영역별 교육목표, 3) 학습 내용, 그리고 4) 교육과정 조직으로서의 편제 등의 네 가지를 설정하고, 각 요소별로 양국의 교과 외 교육활동의 일부로서 '새량 활동'과 '총합적 학습 시간'은 어떠한 공통성과 차이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교과 외 교육활동 가운데 특별활동을 제외한 새량활동과 총합적 학습 시간의 비교·분석에만 국한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공식 문서로 표현된 교육과정만

을 대상으로 비교를 시도하였으며, 실제로 양국의 학교 교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개된 교육과정(operational curriculum)에 대한 비교·분석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양국의 교과 외 교육활동을 분석함에 있어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의 국민강통기본교육과정에 나타난 내용과 일본의 소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의 교과 외 교육활동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II. 창설 배경의 한·일간 비교

본 장에서는 한·일 양국의 교과 외 교육활동 가운데 하나인 '새량 활동'과 '총합적 학습 시간'을 비교함에 있어서, 창설배경 혹은 맥락으로서 교육과정 통치 구조적 배경,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 이념적 배경 등을 개관한 다음 비교·분석을 통한 몇 가지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새량 활동'의 확대·신설 배경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 제제는 교육의 기회균등, 이념 실현 등의 측면에서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되나 지역과 학교,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제 특성과 여건이 무시되기 쉽다는 점이 그 단점이다.

지금까지 단위 학교에서는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전국 공통의 교육과정에 의한 교육 활동을 하였으므로 학교나 지역 수준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획일화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다양한 형태로 표출하였다.

이와 같은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 제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 개인의 교육적 요구와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맞는 인간중심 교육의 실천으로 진전되었다.

이러한 인간중심 교육의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초·중등학교의 '새량 활동'의 확

대·신설이다.

여기서 확대라는 개념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에 '학교 재량 시간'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3학년에서 6학년까지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시간 수는 연간 34시간(주당 1시간)에 불과하지만 상징적으로는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그러나 모치린 선정된 '학교 재량 시간'은 제6차 교육과정이 제3학년에 적용되기 전 1995년 11월자로 부분 개정의 대상이 되었다. 그 당시 초등학교 영어 교과목의 신설(연간 68시간 이수)로 인해 '학교 재량 시간'에 배당된 연간 34시간을 0~34시간으로 개정하였다.

이 개정에서 각 학년별 연간 총 수업 시수의 증가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학교 재량 시간'을 축소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여기서 0~34 시간이라는 기준은 다른 교과에 적용하고 있는 최소 시간 배당의 원칙에 위배되며, 상한 기준(34시간)의 채택 가능성 또한 희박하므로 '학교 재량 시간'이 실질적으로 폐지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와 같이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학교 재량 시간'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았으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에 연간 60시간, 2학년에 6학년까지 연간 68시간(주당 2시간)씩 확대·신설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특징 중의 하나로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적용과 고등학교 선택 교육과정의 도입 그리고 초·중등학교의 재량활동 확대·신설을 들 수 있다.

교육 과정의 3대 영역(교과, 재량 활동, 특별 활동)의 하나로 확대·신설된 '재량 활동'은 단위 학교에 교육 과정 결정권 및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하여 학교와 지역 사회의 실정 그리고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교육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나름대로 내용을 선정하고, 학교의 특색을 발휘하여 융통성 있게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의 조화로운 심신의 발달을 기하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중등학교의 경우는 입시 제도, 평가 문제 등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제한점으로

작용될 수도 있겠지만, 교육과정 편성권의 이양이 하부 조직으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에 호응하고 초등학교와의 연계성과 교과 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해야 할 교육적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중등학교의 '재량 활동'의 도입은 의의가 크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과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을 표방하는 제7차 교육과정에서 '재량 활동'은 교육과정의 목표이자 수단이 되므로 그 위상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교육과정의 흐름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상의하달식의 교육과정이 아니라 학교에서 만들어 가는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량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량 활동'의 확대·신설의 의의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첫째,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과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기간인 10년에 걸쳐 재량 활동을 확보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교육의 일차적 현장인 단위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서 재량 활동을 신설·확대하였다는 점이다.

재량 활동 교육과정은 개성 있고 창의적인 인간 육성을 요구하는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고, 교육 제도 운용, 교육 내용 변화물 추구하는 교육적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도입하였다. 나아가 지역 사회와 학생의 요구, 학교의 특수성, 교사의 교육관에 따라 학교 나름대로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 이 점에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 자리잡은 '재량 활동'은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화, 다양화를 위한 시금석이라 할 수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1).

2. '총합적 학습 시간'의 신설 배경

'총합적 학습 시간'의 신설 배경에는 정치 정세의 변화도 있지만, 교육계 내부의 변화도 간과할 수 없다. 1989년판 학습지도요령 개정에서 전후 최초로 교과외의 재편성이 단행되었다. 소학교 저학년의 이과와 사회과가 폐지되고 '생활과'가 신설되었다.

1993년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생활과는 1998년도 학습지도요령 개정(2002년도 시행)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시간 수 삭제 대상에 들지 않았다. 생활과의 축적이 없었다면 '총합적 학습 시간'도 설치되지 않았을 것이다(이병희 외 공역, 2001; 49).

'총합적 학습 시간'이 교육과정 편성에 부각된 구체적인 경위는 1996년 7월 '중앙교육심의회(이하, 중교심이라 한다)'가 제시한 "21세기를 전망하는 우리나라(일본)의 교육에 어린이에게 '살아가는 힘'과 '여유'를 제공한다"라는 제1차 답신과 1998년 7월에 개최된 '교육과정심의회(이하, 교과심이라 한다)'의 답신에서 비롯되었다.

중교심의 답신(1996년 7월)과 교과심(1998년 7월)답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합적 학습 시간'은 '살아가는 힘'을 기르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살아가는 힘'이란 생활의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生活知를 터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총합적 학습 시간'은 현대사회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면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당면한 시대적 과제로부터의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이해, 환경, 정보, 복

지·건강 등의 필요성과 사회적 요청 및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총합적 학습 시간'은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시간의 설치에는 지금까지의 중앙집권형 교육과정 체제로부터의 권력 분산 즉 교육과정 체제 전환의 구체적인 사례임과 동시에 단위 학교가 지역과 학습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활동을 창출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시간의 신설 취지는 1998년의 '교과심' 중간 정리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山根 耕平, 2001, p.17).

어린이들에게 '살아가는 힘'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각 교과 및 도덕, 특별 활동 등의 각각의 지도에 낭비해서 다양한 연구가 응집된 활동을 전개해야 하고, 각 교과간의 연대적 도모하는 지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다양한 시도를 전개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살아가는 힘'이 전인적 힘이라는 것을 의식한다면, 횡단적·총합적인 지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해서, 풍부하고 다양한 학습 활동을 전개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국제이해교육, 정보교육, 환경교육 등에 관한 사회적 요청이 강조되고 있지만, 이러한 제요구는 일차적으로 교과와 깊은 관련을 맺는 교육이므로, 그러한 관점에서 '횡단적·총합적인' 지도를 추진해 갈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두 관점에서 각 교과의 교육 내용을 엄선하여, 시간을 만들어 일정한 시간(以下, '총합적인 학습 시간'이라 칭한다)에 '횡단적·총합적인' 지도를 행할 것을 제안한다(교육과정심의회 중간정리, 1998).

위의 취지에서 시사하듯이 '총합적 학습 시간'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급변하는 향후 사회에 대비하여 '살아가는 힘'을 키우는 것, 다시 말해 사회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해 가는 인간 육성을 기대하고

1) '生きる力:살아가는 힘'은 제15기 중앙교육심의회가 1996년 7월19일 제출한 제1차 답신 '21세기를 전망한 일본의 교육에 관해서'에서 제시한 교육 이념의 하나이다. 답신에서 밝히는 '살아가는 힘'은 "스스로 과제를 발견하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보다 좋게 문제를 해결하는 자질이나 능력이다. 또 스스로를 다스리면서, 다인과 함께 협조하고, 다인을 생각해 주는 마음이나 감동하는 마음 등, 중요한 인간성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天野正輝, 武村重和, 1999, p.54).

있다.

둘째, 현대 사회의 요구와 국제화, 정보화, 다문화 시대의 국제이해, 환경, 정보, 보건·복지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넓게는 간학문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교과 의 틀을 초월한 '횡단식·총합적 학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제창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2002년부터 시행되는 '총합적 학습 시간'은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여 각 학교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지금까지의 교과 의 틀을 초월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창설되었다.

3. 시사점

지금까지 논의한 '재량활동'과 '총합적 학습 시간' 창설 배경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 의하면 창설 배경에 있어서, 교육과정 통치 구조적 측면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징은 기존의 강력한 중앙집권형 통치 구조에서 현장 중심, 즉 교육과정의 분권화, 지역화, 학교 및 학생 중심의 자율화 체제로 진전되었다는 점에서 한·일간 공통성이 있다.

둘째, 한국의 '재량 활동'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학교 재량 시간'의 연장선에서 확대·신설되었으며, '총합적 학습 시간'은 1992년 소학교 1, 2학년에 정식 교과로 채택된 '생활과'

의 연장선상에서 신설되었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이 있으나, 교육과정 연계성 및 단계성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성을 보이고 있다. 즉 제6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학교 재량시간'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상징적인 의미만 부여할 수 있는 반면, 일본의 '총합적 학습 시간'은 '생활과'와의 교육과정 연계성 및 단계성 원칙에 잘 부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성이 있다.

한편,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 이념 측면에서 도출된 한·일간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재량 활동'은 특색 있는 학교 문화 창조를 통한 심신이 발달한 조화로운 인간 육성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총합적 학습 시간'은 사회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살아가는 힘'의 육성을 명확히 제시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성이 있다.

둘째, 양 교육활동은 현대 사회의 과제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한·일간 공통성이 많다.

셋째,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힘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은 자기 주도적 능력과 창의성 함양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체험활동을 통한 생활지력 함양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는 표현상의 차이는 있으나 그 성격에 있어서는 한·일간 공통성이 있는 편이다.

<표 1> '재량활동'과 '총합적 학습 시간' 신설 배경의 비교

구 분	재량 활동	총합적 학습 시간
교육 과정 통치 구조 적 배경	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현장 중심화 ② 제6차 교육과정에서 도입된 '학교재량 시간'의 연장선상에서 신설	①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현장 중심화 ② 1992년 신설 교과인 '생활과'의 발전으로 신설
추구하는 인간상 및 교육 이념	① 특색 있는 학교문화 창조를 통한 심신이 발달된 조화로운 인간 육성 ② 시대적 상황과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는 인간 중심 교육의 실현 ③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자기주도적 능력과 창의성 함양	① 사회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살아가는 힘'의 육성 ② 현대 사회의 과제와 아동·생도 중심의 인간 중심 교육의 실현 ③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체험활동을 통한 생활지력 함양

Ⅲ. 교육 목표의 한·일간 비교

본 장에서는 ‘재량 활동’과 ‘총합적 학습 시간’에서 표방하는 영역별 목표 가운데, 교육 사상, 교육 목표, 학교 경영 목표 등에 관하여 개관한 다음 비교·분석을 통한 몇 가지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재량활동’의 교육 목표

‘재량 활동’ 운영의 목적은 지역 사회의 특성, 학교의 여건, 학생 및 학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인 문화 풍토에 알맞게 창의적인 교육 활동을 함으로써, 21세기의 세계화, 정보화, 다양화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자기 주도적인 능력과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인간 교육을 실현하는데 있다.

‘재량 활동’은 학교 교육의 목표를 체계적으로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이를 실현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흥미, 적성을 반영한 새로운 영역을 설정하고 직접적인 체험 활동 및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육성한다.

둘째, 교사의 교육적 신념을 바탕으로, 학습자의 특기, 소질 등을 토대로 단위 학교의 창의적이고 특성 있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학습자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재량 활동’은 교과와의 상호 보완을 통하여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주제 탐구 학습, 소집단 공동 학습, 체험 학습 등을 통합적으로 폭 넓게 경험하게 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신장시켜 준다.

넷째, 기존의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다루지 못하는 중요한 교육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학생의 소질과 특기를 신장시키며 다양한 인성 발달을 촉진시킨다.

다섯째, 한 교과에서 다루기 어렵고 다학문적 접근이 필요한 교육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제

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폭넓고 종합적인 지식 발달을 이루도록 한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학교 교육의 최종 목표가 인간 교육이라고 할 때, ‘재량활동’은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2. ‘총합적 학습 시간’의 교육 목표

학습지도요령에 제시되어 있는 ‘총합적 학습 시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스로 과제를 찾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제적으로 판단하고 보다 좋게 문제를 해결하는 자질과 능력을 육성하는 것.

둘째, 1)배우는 방법이나 사물에 대한 사고방식을 익히고, 2)문제해결이나 탐구활동에 주제적, 창조적으로 몰두하는 태도를 기르고, 3)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첫 번째 목표의 경우는 ‘총합적 학습 시간’이나 총합적 학습²⁾에서 의도하고 있는 주제성의 원리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다시 말해 주제적인 과제 발견 능력과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사고력, 판단력, 문제해결 능력 등의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두 번째 목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1)자질이나 능력을 익히기 위해 필요로 하는 방법적 기능과 2)태도에 관련된 목표 그리고, 3)스스로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

가 학교에서는 위와 같은 목표에 입각하여 예를 들면, 국제이해, 정보, 환경, 복지·건강 등의 횡단적·총합적인 과제, 학습자의 흥미·

2) ‘총합적 학습’은 교과의 틀이나 경계를 구분하지 않고, 테마나 도표 등을 토대로 스스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관계나 체험활동을 통해 학습자(어린이)의 흥미나 관심을 중요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학문을 만들어 실컷해 가는 학습 즉 학습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다. 그 키워드로써 테마, 도표, 체험 활동, 흥미, 관심, 문제해결력, 정보활용력, 커뮤니케이션력, 과제추구 학습, 표현력, 교류, 실천화 등을 들 수 있다(寺西和子, 2000: 29).

관심에 기초한 과제, 지역과 학교의 특색에 맞는 과제 등을 중심으로 학교의 실태에 적합한 학습활동을 행하도록 되어 있다.

위에서 열거한 항목이 '총합적 학습 시간'의 주요 학습 내용이자 교육 목표이다.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항에 입각해서 창의 연구를 발휘하여 주 2~3시간 정도의 총합적 학습을 시행한다.

한편 이러한 성격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 '총합적 학습 시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종전의 각 교과 학습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財團法人學校敎育研究所, 1999; 65).

첫째, '총합적 학습 시간'은 달성해야 할 목표와 내용이 교육과정 문서상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각 교과에서 볼 수 있는 소위 달성(도달)목표가 아니라 방향 목표(아동의 목표)로서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총합적 학습 시간'은 종래의 집단 획일적 원리가 아닌 주체성의 원리를 중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모든 아동에게 하고자 하는 마음과 자신감을 길러주는 학습활동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전국이 일률적이지 않다. 각 학교가 창의연구를 통해 그 지도 계획에서 전개까지를

행한다는 점이 또 하나의 '총합적 학습 시간'의 특색이다. 말하자면 각 학교와 아동들의 특색에 맞는 학습활동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차이점에서 드러나듯이 '총합적 학습 시간'은 종전의 교육활동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발상에 기초한 도입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3. 시사점

이상에서 논의한 '재량활동'과 '총합적 학습 시간'의 교육 목표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에 의하면 교육 사상면에 있어서, 한국은 창의성과 인간 중심 교육 사상을 강조하고 있고, 일본은 주체성의 원리와 인간 중심 사상을 기저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일간의 공통성을 보이고 있다.

교육 목표면에 있어서, 한국은 미래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과 창의성 신장을 위한 자기 주도적 능력과 인성 및 종합적인 지적 발달 등의 '다년적 인간 육성'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학습자 개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문제 해결력 신장과 학습 및 삶에 관한 방법적 지식의 중시 즉, 지식과 생활의 통합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

<표 2> '재량활동'과 '총합적 학습 시간' 교육 목표의 비교

구분	재량 활동	총합적 학습 시간
교육 사상	① 미래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창의성 함양 ② 수요자의 요구에 입각한 인간 중심 교육의 실현	· 주체성과 공동성 원리에 입각한 인간중심주의 교육의 실현
교육 목표	① 학생의 다양한 요구, 흥미, 직성을 토대로 하는 자기주도적 능력과 창의성 신장 ② 학생의 특기·소질을 계발하는 학습자의 전문성 및 인성 발달 촉진 ③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및 종합적인 지적 발달	① 스스로 과제를 찾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보다 좋게 문제를 해결하는 자질과 능력의 육성 ② 배우는 방법이나 사물에 대한 사고방식을 익히고, ③ 문제 해결이나 탐구 활동에 주체적, 창조적으로 몰두하는 태도를 기르고,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학교 경영 목표	· 학교의 여건, 학생 및 학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독특한 교육적인 문화 풍토에 알맞게 창의적인 교육활동 전개	· 학습자의 흥미·관심에 기초로한 과제를 토대로 지역과 학교의 실태에 부응하는 학습 활동(지역과의 연대 강화)

성이 있다.

학교 경영 목표에 있어서, 한국은 학교의 여건,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여 독특한 교육적인 문화 풍토에 알맞게 창의적인 교육활동 전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학습자의 흥미·관심에 기초한 과제를 증시하면서 특히 지역과의 연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부분적 차이성이 있다.

IV. 학습내용의 한·일간 비교

본 장에서는 ‘재량 활동’과 ‘종합적 학습 시간’에서 취급하고 있는 학습 영역 중, 학습내용 요소, 학습내용 제시 형태, 그리고 학습 방법에 관한 세 가지 측면을 개관한 다음 비교·분석을 통한 몇 가지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재량 활동’의 학습 내용

‘재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이라는 2개의 하위 영역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과 재량 활동’은 국민 공통 기본 교과 심화·보충 학습과 선택 과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³⁾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

초등학교의 ‘재량 활동’은 전학년 연간 68시간(1학년은 60시간) 배당되어 있으며 학교의 실정에 따라 시간 운영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으나,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보다는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창의적 재량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학교의 ‘재량 활동’은 연간 136시간 이상(주당 4시간 이상)으로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의 2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진다. 영역별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는 교과 재량활동 102시간(주당 3시간), 창의적 재량활동 34시간(주당 1시간)을 배당하고 있다. 중학교의 교과 재량활동은 선택 과목의 학습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를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선택 과목으로는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의국어(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로 규정하고 그 외에 개설이 필요한 교과는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서 정한 사전 절차를 거쳐 개설할 수 있다.

고등학교 ‘재량 활동’은 국민공통기본교육 기간 중 10학년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국민공통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학습 및 창의적 재량활동을 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다. 특히 11, 12학년에서는 학생의 적성, 능력, 장래 진로에 따라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민공통기본교육 기간 동안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길러 학생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10학년에 ‘재량 활동’ 시간을 집중 배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의 경우는 1학년에 12단위가 배정되어 있으며, 교과 재량활동의 연간 이수 단위수는 10단위이다. 이는 국민공통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에 4~6단위,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에 4~6단위를 배정하도록 하여 상호 융통성을 주고 있다. 나머지 2단위는 창의적 재량 활동에 배정하여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인 학습⁴⁾을 하도록 되어

3) 창의적 재량활동의 하위영역인 범교과 학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민주 시민 교육, 인성교육, 환경 교육, 경제 교육, 에너지 교육, 근로 정신 함양 교육, 보건 교육, 안전 교육, 성교육, 소비자 교육, 진로 교육, 통일 교육, 한·일 문화 정체성 교육, 국제 이해 교육, 해양 교육, 정보화 및 정보 윤리 교육, 그 외 학교, 지역,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범교과적인 내용 등을 들 수 있다.

4) 교육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된 예시는 없으나 다음과 같은 활동을 초·중등학교에 공통 적용할 수 있다.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 주제 탐구 활동, 소집단 공동 연구, 탐구활동, 자인 체험활동, 프로젝트 학습, 학교 행사 관련 활동, 지역 행사 관련 활동, 학교 자체에서 제작한 특별교육 프로그램, 기타 자율적 교육활동 등을 들 수 있다.

있다.

2. '총합적 학습 시간'의 학습 내용

'학습지도요령'에 의하면 '총합적 학습 시간'의 학습 영역은 국제이해·외국어 회화, 환경, 정보, 보건·복지 등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과제를 중심으로 각 학교의 창의 연구를 살려 실시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시간의 학습 활동은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맞게 교육 현장에서 창의력을 충분히 살려서 전개하는 구체적인 학습 활동이다. 각 활동에서는 총합적 학습을 전개하는데 있어 시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함과 동시에 다양한 학습 형태의 도입과 외부 인사의 협력 그리고 지역의 풍부한 교재와 학습 환경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구하고 있다.

소·중·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습 활동의 예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이해, 정보, 환경, 보건·건강 등의 횡단적·총합적 과제에 관한 학습 활동.

둘째, 생도의 흥미·관심, 진로 등에 따라서 설정한 과제에 관해, 지식이나 기능의 심화, 총합화를 시도하는 학습 활동.

셋째, 개인의 삶의 방법이나 진로에 관해서 고찰하는 학습활동.

첫 번째 활동 유형은 소·중학교에 적합한 학습활동으로서 현대적인 과제에 관해 취급하고 있으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활동 유형은 고등학교에 적합한 학습활동으로서 과제의 실질을 교과를 통해서 심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해석된다. 그리고 세 번째의 활동 유형은 학습자 자신이 스스로의 장래에 관한 인생 설계나 그것과 관련하는 직업이나 진로에 관한 주제적 학습 활동이라 점에 의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한편, 학습활동 내용이나 형태, 지도체제 등에 관한 지침 또는 배려 사항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학습지도요령 총론에 명시되어 있

는 '총합적 학습 시간'의 배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 체험이나 봉사 활동, 취업 체험 등의 사회 체험, 관찰·실험·실습, 조사·연구, 발표, 토론, 물건 만들기, 생산 활동 등과 같은 체험 학습과 문제해결 학습을 적극적으로 취급할 것.

둘째, 그룹 학습이나 개인 연구 등의 다양한 학습 형태, 지역 사람들의 협력을 얻으면서 전 교사가 일체가 되어 지도에 임하는 지도 체제의 구축, 지역의 교재나 학습 환경의 활용 방안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연구할 것. 등과 같은 배려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3. 시사점

이상에서 논의한 '재량활동'과 '총합적 학습 시간'의 학습 내용을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학습 내용 요소에 있어서, 한 일 양국 모두 현대 사회가 요청하는 국제이해, 정보, 환경 등을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으나, 학습내용 제시 형태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학습내용 제시 형태에 있어서, 한국의 초등학교는 '교과 재량활동'보다 '창의적 재량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고, 중학교는 내용 제시가 매우 엄격한 정도이다. 중학교 '교과 재량활동'의 경우는 선택과목인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 외국어, 기타 과목을 우선 배정하도록 한다면 국가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1학년에 재량활동 12단위(교과재량 10 단위, 창의적 재량 2단위)가 집중 배정되어, 하위영역의 단위수와 내용제시가 비교적 엄격한 반면, 일본은 '총합적 학습 시간'은 각 학교의 창의 연구를 살린 학습활동이어야 하기 때문에 각 교과 등과 같이 내용을 규정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하에 목표와 수업 시 수만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도 몇 학년에 무엇을 해야한다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이 학교에 임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차이성이 있다.

<표 3> '재량활동'과 '총합적 학습 시간' 학습 내용의 비교

구 분	재량 활동	총합적 학습 시간
학습 내용 요소	① 현대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 범교과 학습 ② 학습자 및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한 내용 ③ 독특한 학교 문화 풍토 조성에 부합하는 내용	① 현대사회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횡단적·종합적인 학습 내용(국제이해, 정보, 환경, 복지·건강 등) ② 아동 생도의 흥미·관심에 근거한 과제 ③ 지역과의 연대에 의한 학교의 특색에 부응한 과제
학습 내용 제시 형태	① 국가수준의 내용 규정이 엄격한 편이다. · 초등학교의 경우 창의적 재량활동 권장 · 중학교의 교과재량활동은 선택과목 학습에 우선 배정 · 고등학교는 10학년에 집중 배정	· 국가 수준에서의 내용 규정이 없다. (각 학교의 창의 인구를 살린 학습활동이 어야 한다는 인식 하에 목표와 수업 시수만 규정하고 있다).
방법의 측면	① 학습 방법의 학습 ② 체험학습과 문제 해결력 신장 등	① 체험 활동을 통한 방법지(方法知)와 ② '살아가는 힘'과 관련된 生活知 육성을 강조.

방법의 측면에서 있어서는 한·일 양국 모두 체험 활동과 학습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성이 있으나, 활동 형태 및 유형은 다소의 차이가 있다. 즉 일본에서는 총합적 학습을 통해 '살아가는 힘'이나 '살아가는 방법'과 같은 생활지력을 기른다는 목표를 선정하여 물건 만들기, 생산 활동 체험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예시를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거기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한 편이다.

V. 교육과정 편제의 한·일간 비교

본 장에서는 '재량 활동'과 '총합적 학습 시간'의 교육과정 편제의 핵심 요소인 이 시간의 명칭, 교육과정상의 위치 및 영역, 그리고 이 시간에 대한 위상(연간 총 수업시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에 관해 개관한 다음 비교·분석을 통한 몇 가지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 '재량 활동'의 편제상 특징

'재량 활동'은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의 2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

과 재량 활동'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과 선택 과목 학습을 위한 것이며, '창의적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교육적 필요, 학생의 요구 등에 따른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위한 것이다(교육부, 2001; 6).

초등학교의 '재량 활동'은 학교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배정할 수 있으나,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보다는 범교과 학습과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 역점을 두는 '창의적 재량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초등학교 '재량 활동'의 수업 시수는 '교과 재량 활동'과 '창의적 재량 활동' 수업 시수를 합하여 연간 68시간(1학년은 60시간)이다.

중학교의 경우 '교과 재량활동'은 선택과목 학습과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에 활용되며 '창의적 재량활동'은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을 포함하고 있다. 중학교 '재량 활동' 시간은 연간 136시간인데 이중 102시간은 '교과 재량활동'에, 34시간은 '창의적 재량 활동'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102시간의 '교과 재량 활동' 시간은 선택 과목에 우선 배정되나 나머지 시간으로 기본교과 시간에 할애하도록 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 재량활동'은 국민공통 기본교과의 심화 보충 학습에 4~6단위 선택과

목 학습에 4~6단위를 배정하고, '창의적 재량 활동'은 나머지 2단위로써 범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에 배당되어 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성격이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이라는 점에 착안하면 고등학교는 이러한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지역이나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구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이 '재량 활동'이라 할 수 있으나 '창의적 재량 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주당 1시간에 불과하다.

'재량활동' 연간 수업시수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상급 학교로 갈수록 '재량 활동' 시간이 확대되고 있다. 연간 총 수업 시

수에서 '재량 활동'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상급 학교로 갈수록 많은 시간이 배당되어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는 음악, 미술, 외국어에 준하는 시간이 배당되어 있으나, 중학교의 경우는 국어교과(1학년: 170시간, 2학년: 136시간, 3학년: 136시간)에 상당하는 시간이 배당되었고, 고등학교 1학년의 경우는 국어(136시간), 수학(136시간), 외국어(136시간)를 상회하는 시간이 배당되어 있다.

한편 '재량 활동'의 교육과정상의 하위 영역과 시간 수에 관해 <표 5>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표 5>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학교 나름의

<표 4> '재량활동'의 연간 수업 시수

학교 급별		초 등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구 분	학 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재량 활동	교과 재량							102	102	102	170		
	창의적 재량							34	34	34	34		
	계	60	68	68	68	68	68	136	136	136	12단위 (204)		
	비율	7.2%	8.0%	6.8%	6.8%	6.2%	6.2%	11.7%	11.7%	11.7%	16.6%		
연간 수업 시(단위)수		830	850	986	986	1,088	1,088	1,156	1,156	1,156	72단위 (1,224)	144 단위	

① 이 표는 34주를 기준으로 한 연간 최소 수업 시간 수이다.

② 1학년에 배당된 시간 수는 30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나머지 4주(8시간)는 3월 1개월 '우리들은 1학년'에 배당된 시간이다.

③ 1시간의 수업은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표 5> '재량활동'의 하위 영역과 연간 수업 시수

영 역	학교급별 (최소시간수)	초등학교 (68시간)	중 학 교 (136시간)	고교 1학년 (12단위, 204시간)
	하위 영역			
교 과 재량활동	기본교과 심화·보충	0~34시간	0~68시간	4~6단위
	선택과목 학습	.	34~102시간(한문, 컴퓨터, 환경, 제2외국어 기타)	4~6단위
창 의 적 재량활동	범교과 학습	68시간	34시간	2단위 (34시간)
	자기 주도적 학습			

‘창의적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고,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재량활동’에 중점을 둔 반면, 중학교는 두 가지 영역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재량 활동’은 교육과정 운영의 분권화, 자유화, 지역화, 내용의 적정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의 한 영역으로서 다음과 같은 성격과 기능에 잘 부합한다.

첫째, ‘재량 활동’은 학교의 독특한 개혁적 필요,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 활동이다.

둘째, ‘재량 활동’은 국민 공통 기본 교과와 보완적 성격을 갖는다.

셋째, ‘재량 활동’은 범 교과 학습과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강조되고 있다.

2. ‘총합적 학습 시간’의 편제상 특징

‘총합적 학습 시간’은 국가적 기준(national standard)으로부터 자유로운 학습 활동이다. 왜냐 하면 ‘학습지도요령 총칙’에서 ‘총합적 학습 시간’의 명칭은 각 학교마다 적절히 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이병희 공역, 2001: 47). 따라서 이 시간에 대한 교육과정 기준상의 명칭은 학교 차원에서 이 시간의 취지를 살려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일임하고 있으므로 학교마다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학습지도요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상의 위치와 수업 시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총합적 학습 시간’은 교육과정상 필수 영역이다.

소·중학교의 교육과정은 국어 산수(수학) 등의 각 교과와, 도덕, 특별활동 외, ‘총합적 학습 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합적 학습 시간’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필수 학습 영역이다. 단 몇 학년에서 무엇을 지도해야 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각 학교가 창의력을 발휘하여 일반 교과의 틀을 초월한 ‘횡단적·총합적 학습’ 등을 전개해야 하기 때문에 상세한 규정 사항이 없는 것이다.

둘째, 연간 총 수업 시 수는 배당되어 있지만 주 단위는 배당되어 있지 않다.

소·중·고등학교의 ‘총합적 학습 시간’의 연간 수업 시수는 <표 6>과 같다.

<표 6>에 의하면 소학교 3~4학년이 연간 105시간, 5~6학년이 연간 110시간 배당되어 있다. 소학교는 저학년(1~2학년)에 총합적인 성격을 가진 교과인 생활과가 설정되어 있는 점이나 생활과를 중핵으로 한 다 교과와의 습득적인 지도가 진행되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서, 제3학년 이상에 설정되어 있다.

중학교에서는 각 학교가 창의력을 살려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한 및 상한의 폭을 두고 있으며, 각 학년 최저 70

<표 6> ‘총합적 학습 시간’의 연간 수업 시수

학교 급별 구 분	소 학 교						중 학 교			고 등 학 교		
	1	2	3	4	5	6	1	2	3	1	2	3
총합적 학습 시간	·	·	105	105	110	110	70~100	70~105	70~130	3~6단위		
비율	·	·	11.5%	11.1%	11.6%	11.6%	7.1% ~ 10.2%	7.1% ~ 10.7%	7.1% ~ 13.22%			
연간 총 수업 시간 수	782	840	910	945	945	945	980	980	980			

* 소학교의 수업 시수 1단위 시간은 45분으로 한다.

***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수업 시수 1단위 시간은 50분으로 한다.

시간, 최대 제1학년 100시간, 제2학년 105시간, 제3학년 130시간 배당되어 있다. 배주 일정 시수만 배당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서 볼 때, 학교에 따라서 학습자의 학습이 효과적으로 전개 되도록 각 교과와의 특성에 따라서 배당할 수도 있고, 특정 시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거나 체험학습과 같은 활동시간을 확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2시간 연속으로 선정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연간계획을 세워 탄력적인 시간 배당의 자율성을 각 학교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과도 상통한다.

고등학교의 경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도의 실태에 부응한 다양한 학습이나 각 학교의 특색에 따른 교육 활동의 전개가 가능하도록 '총합적 학습 시간'에 할당된 수업 시수 및 단위 수에 폭을 두고 있으며, 단지 단위만 부여하고, 이 단위는 졸업에 필요한 이수단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총합적인 학습 시간'의 시간(단위)수는 소학교에서는 3년생 이상부터 주당 3시간 정도, 중학교에서는 주당 2~4시간 정도, 고등학교에서는 졸업까지 3~6단위 배당된다.

3. 시사점

이상에서 논의한 '재량활동'과 '총합적 학습 시간'의 편제상의 특징은 <표 7>과 같다.

<표 7>에 의하면 명칭에 있어서는 한국은 그 명칭이 뚜렷이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일본은 '총합적 학습 시간'의 목표나 취지에 부합하는 특성을 살려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성이 있다.

교육과정상의 위치에 있어서, 한·일 양국 공통히 이 시간을 교육과정상 필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보이고 있으나, 하위 영역에 있어서는 한국의 경우는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이라는 별도의 영역을 두고 있는 반면, 일본은 하위 영역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또한 한국은 '교과 재량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공통기본교과 및 선택과목의 교과 학습에 비중을 두는 반면, 일본은 교과를 초월한 횡단적 총합 학습(한국의 창의적 재량활동에 해당)을 주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뚜렷한 차이성이 있다.

시간 배당에 있어서, 연간 총 수업 시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의 초등학교 경우 총 수업 시수의 약 7%, 중학교: 12%, 고등학교 1학년: 17% 수준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소학교: 13%, 중학교: 7~12%, 고등학교: 졸업까지 3~6단위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수업 시수가 배당됨으로써 양국 모두 이 시간의 활동에 상당한 위상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표 7> '재량활동'과 '총합적 학습 시간' 편제의 비교

구분	재량 활동	총합적 학습 시간
명칭	· 재량 활동	· 단위 학교에 위임
교육과정상의 위치	① 교육과정 편제의 필수 영역 · 국민공통기본교과의 보완적성적	① 교육과정 편제의 필수 영역
하위 영역	· 교과재량 과 창의적 재량	· 없음
연간 총수업 시수에서 차지 하는 비율	① 초등학교: 총 수업 시수의 약 7% ② 중학교: 총 수업 시수의 약 12% ③ 고등학교(1학년): 총 수업 시수의 17%	① 소학교: 총 수업 시수의 약 13% ② 중학교: 총 수업 시수의 약 7~12% ③ 고등학교(졸업까지): 3~6단위

VI. 요약 및 결론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과 더불어 한국의 교육과정 통치 구조는 국가 수준의 중앙집권적 체제로부터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단위 학교의 재량권과 자율권이 대폭 이양되었다.

이러한 통치 구조의 변화는 교육 수요자인 지역, 학교, 학생 및 학부모로 하여금 자율적이고 창조적이며 능동적인 교육과정 지도성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재량 활동'과 일본의 '총합적 학습 시간'은 어떠한 지향점과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한국의 '재량 활동' 운영의 실제에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한·일 양국의 교과 외 교육활동의 일부인 '재량 활동'과 '총합적 학습 시간'의 선정 배경, 교육 목표, 학습 내용, 편제(교육과정상의 위치 및 시간 배당) 등의 네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 활동'과 '총합적 학습 시간'의 선정 배경은 한·일 양국 공히 시대적 상황과 교육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과정 편성·운영상의 재량권과 자율권을 분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교육과정 통치 구조변에서 기존의 강력한 중앙집권형 체제에 비해 상당한 수준의 자율권과 재량권을 단위 학교에 부여하여 지역, 학교,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독특한 학교문화들 창조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는 점과 양 교육과정은 인간 중심의 교육 이념을 표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그러나 신설 목적면에서 한국은 자기주도적 능력과 창의성 함양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부족한데 반하여, 일본은 전인적인 힘으로서 '살아가는 힘'의 육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가정, 학

교, 지역 사회, 3자 연대들 통한 체험 활동과 생활 지력 향상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재량 활동'과 '총합적 학습 시간'의 교육 목표는 미래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교, 지역 사회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하여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전개한다는 점과 학습자 중심의 인간 중심주의 교육 과정 정신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그러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자율과 창의에 바탕을 둔 학생 중심 교육과정(2000, 교육부)' 정신의 구현과 '재량 활동'에서 기르고자 하는 자기 주도적 능력과 창의성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적 재량활동에도 어느 정도 그 비중이 두어져야 한다.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의 비율이 중학교의 경우는 3배(3:1), 고교 1학년의 경우 5배(5:1)에 해당하는 수업 시 수가 '교과 재량활동'에 더 많이 배당됨으로써 '창의적 재량활동'보다 '교과 재량활동'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총합적 학습 시간'의 성격이 한국의 '창의적 재량활동'과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교육 목표 구현을 위한 시간 확보에서는 큰 대조를 이룬다.

셋째, '재량 활동'과 '총합적 학습 시간'의 학습 내용은 한·일 양국 모두 현대 사회가 요청하는 국제이해, 정보 활용, 환경 교육, 민족 문화 정체성 교육, 보건, 복지, 주제 탐구 활동, 공동 연구, 체험 활동 등을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다.

그러나 학습 내용을 제시하는 양식은 크게 차이가 있다. 한국의 중학교 교과 재량활동의 하위 영역인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국가 수준에서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 외국어, 기타 과목을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격, 목표, 내용, 평가 등 상세한 내용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정형화된 국가 수준의 내용 규정은 재량 활동의 신설 취지를 훼손할 우려도 예상된다.

반면, 일본의 '총합적 학습 시간'은 각 학교의 창의 연구를 살린 학습활동이어야 하기 때문에 각 교과 등과 같이 내용을 규정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 하에 목표와 수업 시 수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셋째, '재량 활동'과 '총합적 학습 시간'의 명칭에 있어서, 한국은 '재량 활동'으로 명칭이 고정되어 있는 반면, 일본은 총합적 학습의 특성을 살려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 일임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성이 있다.

교육과정상의 위치에 있어서, 한·일 양국 공통히 이 시간을 교육과정상 필수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성이 있으나, 한국의 경우는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이라는 하위 영역이 있다는 점에 차이성이 있다.

한편 시간 배당은 양국 모두 기존의 교과 외 교육활동 영역인 특별활동보다 월등히 많은 시수가 배정되어 있으며, 연간 총 수업 시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상대적으로 많은 수업 시수가 배당됨으로써 양국 모두 이 시간의 활동에 상당한 위상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유사하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1997). 「고등학교 교육과정(1) (2)」.
- 교육부(1998). 「제7차 초·중등 교육과정 연구자료」.
- 경상남도교육청(2002). 「창의적 재량활동 교수·학습자료」.
- 김재복(1995). 「교육과정의 통합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 유광찬(2001).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 서울: 교육과학사.
- 이리 동중학교(1998). 「별교과 학습 프로그램 개발과 활용방안」.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 보고서.
- 이병희·조덕주·강역(2001). 「창의적 재량활동」. 서울: 교육과학사.
- 인천 석남서초등학교(1998). 「별교과 학습 재량활동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육부지정 교육과정연구 보고서.
- 충북 영동고등학교(1988). 「제7차 교육과정의 시행에 대비한 재량활동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육부지정 교육과정 연구학교 연구 보고서.
- 최희선 공저(1991). 「전진국의 교육관리 및 교육과정 편제·운영체제」. 서울: 성원사.
- 함수곤(1994). 「교육과정의 편성」.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天野正輝・武村正和(1999). 「教育課程」. 東京: 明治圖書.
- 天野郁夫(1985). 「教育改革を考える」.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天野郁夫(1995). 「教育改革のゆくえ」.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安彦忠彦(1999). 「カリキュラム研究入門」. 東京: けいそう書房.
- 黒澤惟昭・佐久間孝正(2000). 「世界の教育改革の思想現状」. 東京: 理想社.
- 財団法人 學校教育研究所(1999). 「新教育課程の基本的特徴」. 東京: 學校圖書.
- 寺西和子(2000). 「総合学習の理論とカリキュラ

- ムづくり」, 東京: 明治図書.
- 日本教育方法學會(1989). 「“教育方法18” 新教育課程と人間的感性の育成」, 東京: 明治図書.
- 日本教育方法學會(1999). 「教育課程・方法の改革」, 東京: 明治図書.
- 東山 明, 今谷順重(2001). 「総合的な学習ヒット教材集 1」, 東京: 明治図書.
- 龜井浩明・有園格・佐野金吾(1998). 「キーワードで読む教科密答中」, 東京: ぎょうせい.
- 柴田 義松 編著(2001). 「教育課程論」, 東京: 學文社.
- 文部省(1999). 「改訂 小學校學習指導要領」, 東京: 明治図書.
- 文部省(2000). 「我が 國の文教施策(平成5年~12年)」, 東京: 大藏省 印刷局.
- 山根耕平(2001). 「総合的な學習の研究」, 東京: ナカニシヤ出版.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Curriculum of Discretional activities in Korea and the Integrated studies in Japan

Choe, Hoseoung · Kim, Jongju

(Kyungnam University · Cheol seong Highschoo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iculum of 'discretionary activity' of both Korea and Japan, and the curriculum of comprehensive learning hours in Japan with a regard to nation level curriculum, providing fundamental theoretical information in operation of 'discretionary activity' in Korea.

In this study, the two tasks were presupposed and comparatively analyzed as the following:

First, the establishment background and the position and time assignment in the curriculum were examined.

Second, educational target, learning range

and activity content were comparatively sought for.

As a result, establishment background and educational target have a similar distinction while 'position and time assignment in the curriculum' and 'learning range and activity content' were shown to have a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m.

Finally,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wo countries were presented for future reference of information at the actual scene of education and researches in Korea regarding the curriculum of discretionary activity.

Key Words : discretionary activity, the curriculum of comprehensive learning, educational target, position and time assignment, learning range, activity content.